



2022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백서



태재미래전략연구원
TAEJAE FUTURE CONSENSUS INSTITUTE





안녕하세요,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원장 김성환입니다.

현재 인류는 기후 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칸트가 말한 것처럼 “세계 평화는 정치적 이해의 산물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글로벌 협력과 평화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창을 복원하고, 핵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공동체를 구축하고 향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동북아시아가 참여하는 평화 공동체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이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조적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초일류 수준의 정부, 정당, 싱크탱크, 대학, 기업, 미디어, 군대 등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백서를 통해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이 2022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한 성과물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여 보다 많은 지혜와 통찰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뚫고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면 인류가 당면한 지속불가능의 위기를 뚫고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원장

김 성 환

Contents

발간사	02
01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제1장 설립 취지	08
제2장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회 구성	09
제3장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혁	10

2022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백서

02 주요 연구 내용

제1장 미중 협력	14
제2장 중국의 변화	28
제3장 동아시아 협력	38
제4장 한반도 미래산업	47
제5장 초일류역량	57

2022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백서

- 제1장 설립 취지
- 제2장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회 구성
- 제3장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혁



01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제1장. 설립 취지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인류 공영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 변화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다.

2015년 12월 (주)한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의 출연으로 여시재가 설립됐으며, 2023년 3월 태재미래전략연구원으로 개편했다. 혁신적 교육기관 태재대학교와 더불어 인류 공영을 선도하는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최고의 싱크탱크 및 정책 전문가들과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며,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정파를 초월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세미나와 포럼, 출판 활동 및 국내외 유력 매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공감대를 얻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구주제



지속불가능 극복하는 지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핵확산과 테러리즘 등
지속불가능에 직면한
인류의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에서 협력으로의 대전환

중국의 부상으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을
협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

기술 혁명이 인류를 위해
선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융합된 시대 가치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동양과 서양이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제2장.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회 구성

이사장



김도연

前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사



김성환

前 외교통상부 장관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이광형

KAIST 총장



윤정로

KAIST 명예교수
UNIST 석좌교수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원장
한국인공지능제조이니셔티브
이사장



황철주

(주)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임창훈

태재홀딩스 사내이사
前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서준

#HASHED 대표

감사



이진성

前 헌법재판소장



이경태

前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

제3장.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혁

2015

12월

- 이현재 1대 이사장 취임
- 재단법인 여시재 설립

2016

10월

-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유라시아 전략과 비전' 포럼 개최

2017

8월

- 이광재 원장 취임

2018

8월

- '미래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월

- 2018 여시재포럼 in 베이징
'신문명도시와 지속가능발전'
- 2018 여시재포럼 in 서울
'변화 속의 한반도와 나비프로젝트' 개최

11월

- 2017 여시재포럼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프로젝트' 개최

4월

- 여시재·매일경제·KAIST 공동기획
미래산업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산업의 방아쇠를 당기자' 개최

9월

- 여시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지산학 아카데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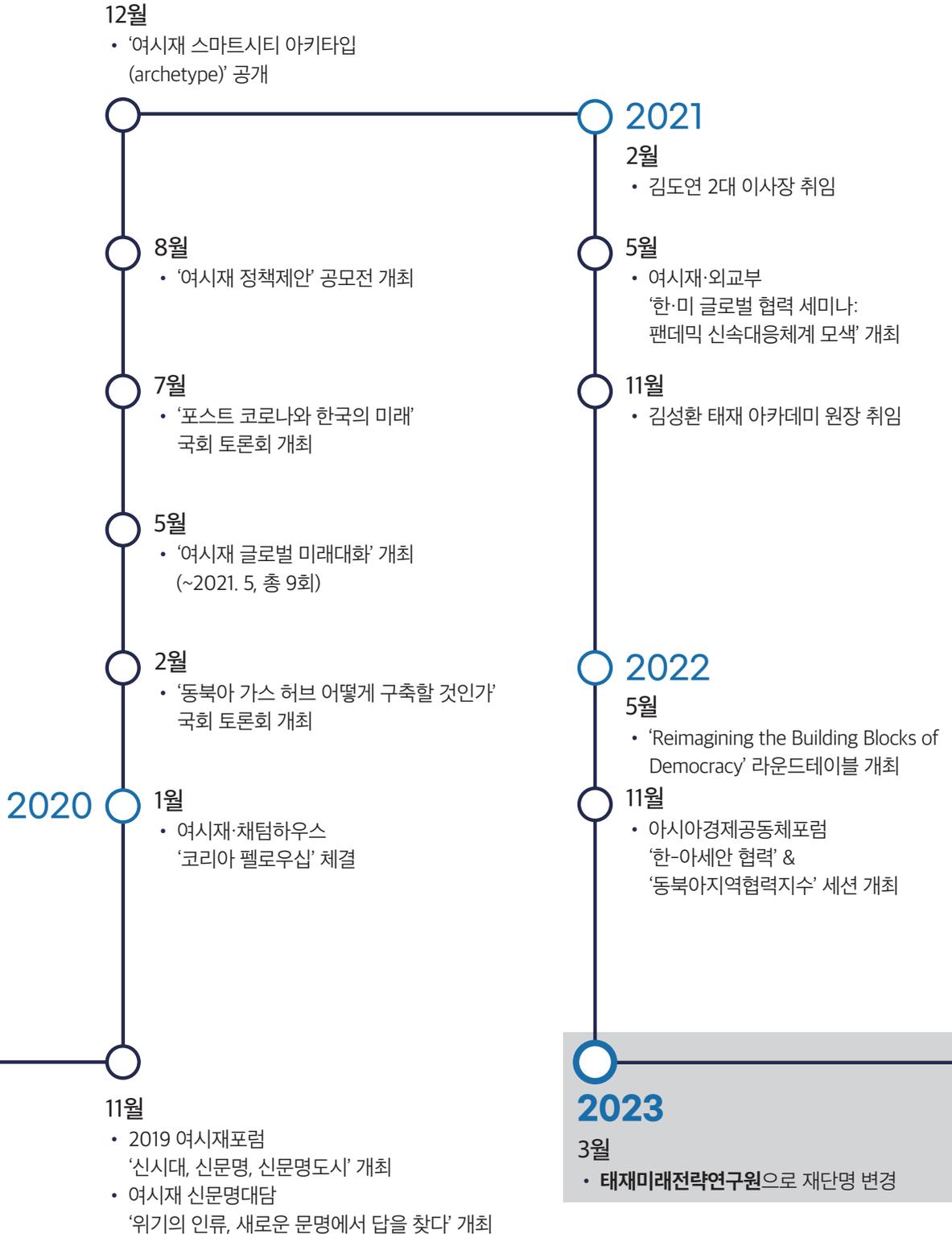
2019

3월

- 2019 보아오포럼 참가
'한중 경제인 라운드 테이블',
'지속가능한 도시' 세션 개최

7월

- 2019 Future Consensus Dialogue
'한미일 협력 지속가능한 번영과 미래' 개최



2022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백서

- 제1장 미중 협력
- 제2장 중국의 변화
- 제3장 동아시아 협력
- 제4장 한반도 미래산업
- 제5장 초일류역량



02

주요 연구 내용



제1장. 미중 협력

[1] 연구 개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무역을 넘어선 안보, 금융,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로 대립 양상이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핵 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한 악몽도 되살아나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상호 불신의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작은 오판이나 오해로 인해 미·중, 미·러를 비롯한 핵보유국 간 안보 위기가 촉발되고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오해와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고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상호 합의와 협력 없이는 그 어떤 방안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국가 간 대화의 물꼬를 터서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량살상무기 테러는 미국과 중국 모두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테러 방지와 대응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 적은 의제이다. 정치·외교·안보적 접점이 큰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 구축 및 관계 개선이 가능하고 다른 의제에 대한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전세계적 의제 확산 능력을 가진 해외 우수 언론·연구 기관과 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상기시키고 미·중 양국 간의 대화를 고무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성과

1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테러 연구

연구 배경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현재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안보, 금융, 기술 등 다방면에서 증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국가이기에 무력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동북아뿐만이 아닌 전세계로 그 충격이 전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중이 공통의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의제의 개발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출발점을 찾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량살상무기 테러는 9/11의 참사를 경험한 미국, 그리고 신장, 티베트의 테러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에게 모두 중요한 관심 주제이며, 그 위험성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 낮은 분야이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국제 제도적 방지 및 대응 능력이 취약하여 협력의 여지가 있기에 미·중이 대화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의제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문제 의식을 확산하고 미·중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다수의 국내외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였다.

연구 실적

2022년 민주주의와 문화 재단 Building Blocks of Democracy 서울 라운드테이블 및 시민 패널

일 시

2022년 5월 17일 (라운드테이블)

2022년 5월 27일 (시민 패널)

<민주주의와 문화 재단>의 Building Blocks of Democracy 프로젝트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절차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시드니, 서울, 워싱턴 DC, 베를린,

제1장. 미중 협력

텔아비브에 위치한 5개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5개 도시에서 5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라운드테이블)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한 후, 시민 패널을 통해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서울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삼권 분립의 위기'였으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소주제를 다루는 3개 패널로 구성하였다. 라운드테이블과 시민 패널 모두 채텀하우스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첫번째 패널에서는 정당의 무력화 및 입법부의 조정 기능 상실 문제를 다루었다. 사회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정당 간 교착 상황이 잦아지면서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포퓰리즘을 앞세우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바뀌어가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제4부의 수립이 제시되었다. 제4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제를 진전시키고 기후 문제와 같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며, 2년 임기의 시민 대표와 8년 임기의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안이 논의되었다. 시민 패널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는데,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성향을 제한하고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로 찬성 의견이 나온 반면, 새로운 기구의 수립보다는 기존의 기구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두번째 패널에서는 행정부의 독주와 선거 제도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체적인 견제 기제가 부재한 행정부의 권력 비대 현상과 집권 여당의 영향력을 부풀리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감독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둘째, 유권자들의 뜻이 더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감독 기관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순위 선택 투표, 결선투표제 등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안이 논의되었다. 시민 패널에서는 감독 기관 개혁보다 선거 제도 개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찬성 측은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통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세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았고, 반대 측은 정당 개혁,

행정부 권력의 축소 등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패널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및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를 다루었다. 입법부의 합의 도출 기능 마비로 인해 정당들이 법원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과 행정부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법조인들을 주요 판사직에 임명하여 사법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행사하는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사법부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법위원회의 설치가 제시되었다. 사법위원회는 판사와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하며, 사법위원 후보자 선정은 외부 기관에서 시행함으로써 정·재계의 압력으로부터 분리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시민 패널 참가자 중 찬성 측은 사법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법부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반대 측은 정당 기능의 마비를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정당 개혁이 선결되어야 하며, 판사는 임명이 아닌 선거로 선출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2년 민주주의와 문화 재단
 Buliding Blocks of Democracy
 서울 라운드테이블
 2022.5.17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대화당



제1장. 미중 협력

2022년 민주주의와 문화 재단
Building Blocks of Democracy
시민 패널
2022.5.27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대화당



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Weapons)

국내 전문가 1차 간담회

일 시

2022년 8월 18일

발 제 자

김육기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교수

정근홍 육군사관학교 물리화학과 교수

차장현 경찰청 대테러과 연구사

조홍제 국방대학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대량살상무기 분야별로 테러 위협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평가를 듣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김육기 교수의 발제에서는 국제 사회가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생방 테러는 전반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지만 높은 평균 사상자 수로 대표되는 큰 피해 규모 때문에

방지와 대응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화학 무기를 사용한 테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으나 잠재적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응 방법은 크게 선제적 대응과 방어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 인명과 자산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어적 수단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으나, 국제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은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과소 공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근홍 교수의 발제에서는 노비축을 비롯한 화학 무기를 사용한 테러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화학 무기가 위험한 이유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 수만 가지의 독성 물질을 제조할 수 있고, 사용된 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초동 대처가 불가능하며, 제독 비용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물질의 사용 및 통제를 강화하며 신종 화학테러 가능 물질에 대한 대처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테러 방지와 대응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장현 연구사의 발제에서는 생물 무기와 방사능 무기를 사용한 테러의 위험성이 논의되었다. 대량살상무기의 유형별로 테러 위협의 정도를 평가할 때, 작전 수준, 목표 계층, 목표 효과를 고려하게 되는데, 생물 무기는 작전 (operational) 수준에서 개인과 정부를 망라한 전 계층을 상대로 국가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생물 무기는 생산, 은닉, 운반이 용이하며, 잠복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려워 초동 수사나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방사능 무기도 무색 무취한 성질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많은 국가가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초기 대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흥제 책임연구원의 발제에서는 핵 무기를 사용한 테러의 발생 과정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다. 핵 테러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성공 시 피해 규모가 방대하여 테러 단체의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선택지로 보았다. 핵 물질도 국가 간 거래, 탈취, 자체 생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더티밤, EMP와 더불어 드론 등의

제1장. 미중 협력

새로운 공격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변화되는 핵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테러 단체의 자금을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특히 컨테이너 검사 등 세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RN 국내 전문가 2차 간담회

일 시

2022년 9월 1일

발 제 자

차장현 경찰청 대테러과 연구사

김욱기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교수

1차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찾고 대량살상무기 테러 대응에 대한 미·중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차장현 연구사의 발제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크게 비확산, 대확산, 사후 관리로 나누고, 그 중 비확산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살펴보았다. 비확산 단계에서의 대응은 국제 조약, 무기 원료에 대한 수출 통제, 유엔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사찰이 불가능한 점, 미지정 물질에 대한 수출 통제가 불가능한 점,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수직적 관계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물 무기 분야에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제외하면 검증 체계나 집행 기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테러 위협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위력 무기와 투·발사체의 통제를 통해 국제 규범의 간극을 좁히고, 중거리핵전력조약을 재개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비확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욱기 교수의 발제에서는 테러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ITERATE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중 테러 대응의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ITERATE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테러의 80%가 미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수치가 20%대로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이 우방국들과의 대테러 협력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대중국 테러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 대응 전략 중 선제 대응은 유엔결의안, 국제 조약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무임승차 국가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방어적 수단을 취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대량살상무기 테러와 국제안보 위기: 미중관계 전문가 토론회

일 시

2022년 9월 8일

발 제 자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핵 전쟁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테러가 국가 간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역할 및 협력 가능성을 점쳐 보고자 하였다.

이희옥 교수의 발제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도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먼저 적극적인 문제 해결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반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더 깊게 이해하고 먼저 협력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장. 미중 협력

박인휘 교수의 발제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 공공재로 본다면 이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는 테러 방지 및 대응에 대해 이미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신형 안보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한국, 미국,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통해 미·중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022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오찬 심포지엄

일 시

2022년 9월 29일

발 제 자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지속가능개발센터장

앤젤리나 아이히호르스트 유럽연합 유럽 및 중앙아시아 총국장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서방이 개입할 경우 핵 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밝히면서 핵 전쟁 및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오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미·중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테러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양국 간 정치적, 전략적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토론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핵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자포리아 원자력 발전소 공격, 북한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 합법화, 그리고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는 지난 70년간의 핵 비확산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동시에 핵 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방지 및 처벌을 위한 국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반기문 총장은 극단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과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핵안보정상회담(Nuclear Security Summit)과 같은 자발적 협의체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은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무시한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국들 간에 심각한 외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앤젤리나 아이히호르스트 총국장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은 후보국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핵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국들 간의 투명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오찬 심포지엄
2022.9.29
그리스 아테네



2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배경

태재 중점 의제의 심화 연구 및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 뉴욕타임즈와 그의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와 문화 재단>, 베르그루엔 연구소, 핵위협방지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 등 해외 유수의 언론·연구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중 뉴욕타임즈와 <민주주의와 문화 재단>과는 서울과 아테네에서 다수의 국제 회의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테러, 동서양 가치 융합, 민주주의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연구 실적

동서양 가치 융합 국내 전문가 간담회

일 시

2022년 8월 25일

발 제 자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 론 자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오늘날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제도적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법을 동서양 가치의 융합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김호기 교수의 발제에서는 포퓰리즘의 부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으나 정치권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엘리트주의를 질타하는 포퓰리즘 성향의 지도자에게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퓰리즘의 반엘리트주의적 측면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반다원주의적 성향은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야기한 구조화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치세력 간에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동양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젊은 세대가 갖는 개인주의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옥 교수는 중국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 자본, 투표 집단의 전횡이며,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것보다 선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믿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식 사회주의가 점점 일국 사회주의로 변하면서 세계에 대한 중국의 상상력과 기여도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다시 세계적인 국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개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진 교수는 선거와 대의제로 대표되는 미국식 민주주의에서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제시하는 비판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찰을 통해 미국의 자유주의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덕성과 윤리, 공동체 정신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공자-아리스토텔레스 대담

일 시

2022년 9월 28일

발 제 자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지속가능개발센터장

경제 침체, 에너지 위기, 허위 정보 확산 등 현재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제도적,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동서양을 대표하는 고대 철학자인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찾고자 하였다.

반기문 총장은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발흥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는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하며, 훌륭한 지도자는 청렴함과 국제시민정신을 겸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존의 철학은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곧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 및 절제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선한 사회의 핵심은 지도자와 시민의 도덕이며, 힘의 정치가 아닌 인간의 복지를 우선하는 윤리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쟁과 지정학적 안보 위기는 균형의 상실 때문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중용과 균형을 지키지 못한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 정책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는 강대국, 즉 미·중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투명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공자-아리스토텔레스 대담
2022.9.28
그리스 아테네



제2장. 중국의 변화

[1]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표는 세계 변화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중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서구의 산업화 모델의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문명 모델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지속불가능성의 온상인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화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나아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공헌할 미래 도시 모델의 연구를 위해 중국 공산당의 미래 전략 및 그에 수반하는 도시화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연구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연구소와 전문가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미래형 도시 모델의 개발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래 기간산업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도시 간 협력을 통해 동북아 협력을 증진하고, 미중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 중국 공산당의 정치권력 메커니즘 및 정치 엘리트 양성 구조 분석, (2) 중국의 도시화와 GNP 성장(\$1만-\$1.5만-\$3만)에 따른 에너지·식량 분쟁 발생 시점 및 품목 예측, (3) 지속 불가능 위기 극복·디지털 사회 선도·미래 가치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한 신문명도시 개념 정립, (4) 도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市)·산(産)·학(學) 시스템 제안 등의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활발한 출판과 포럼 등을 통해 한중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22년에는 중국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미래형 强小 도시 연구에 집중했고, 온라인 데이터 업데이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국 공산당의 미래 전략 및 통치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주요 성과

1 중국 공산당 연구

연구 배경

미-중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중국 당-국가 체제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및 그 통치 역량에 대한 이해 없이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중국의 미래도 전망할 수 없다. 중국이 개혁개방시기 유례없는 사회경제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사를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추진력을 비롯해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하는 결집력까지, 중국 공산당의 통치 역량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바꾼 영향력을 발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미래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량은 검증되지 않았다. 국제 질서 재편을 목적으로 미국식 시스템을 배제하고 미-중 경쟁에 나선 중국이 세계시민의 존중을 받는 차이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향후 어떤 권력 모델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중국의 발전 방향 및 미래 통치 역량을 예측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①핵심 지도자 인식, ②권력구조 변화, ③정치 엘리트 선발/양성 시스템 및 교육 내용, ④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⑤국가 혁신 시스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실적

■ 中共 지도자 인식 및 권력구조의 변화 연구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자 인식 연구는 왕후닝 중공 중앙서기처 서기를 중심으로, 지도부 양성 시스템 연구는 중앙당교·중앙정치국 교육 내용과 당간부 선발·임용·평가 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외, 20대

제2장. 중국의 변화

중앙위원 인물정보 및 시진핑·왕후닝과의 커넥션을 등을 분석했다.

- 中共 지도자 인식 분석의 일환으로 왕후닝이 집필한 논문 20편과 책 2권을 집중 분석했다. 주제는 정치리더십, 정치체제개혁, 국가 소프트파워, 지방 분권, 농촌 거버넌스, 일국양제, 세계질서관, 정신문명 등 다양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요인은 강력한 권위주의, 문화(spiritual)와 교육의 강조, 사회공학적 분석법 등이었다. 시진핑 신시대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진리와 중국 전통문화의 결합과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한다.
- 왕후닝은 ‘America against America’ 등의 글을 통해 미국의 최근 정책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을 가치 보존, 서구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견제, 新권위주의의 필요성으로 요약했다. 첫째, 기술 성장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사회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지만, 기술이 문명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제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은 국민의 자질에 달려있다는 이유다. 셋째, 미국을 추월하려면 과학 기술력에서 미국을 압도해야 하며, 넷째, 가치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 안정을 위해 전통적 핵심 가치, 공동체 가치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 中共 20대 중앙위원 205인의 인물 정보 DB를 구축해 시진핑, 왕후닝 커넥션, 70년대생 차세대 리더 후보, 태재 주요의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별했다. 또한 20차 당대회 개최 전 발표한 ‘지도층 간부 能上能下 규정(능력 중심의 지도층 간부 선발·임용 시스템 규정)’과 관료 당안 데이터 세트(档案·CCER Official s Dataset·33785 건) 분석을 통해 정치 엘리트 선발·임용·평가기준의 변화를 연구했다.

■ 월간 정책동향 작성

중지도부 행보 및 지속불가능 위기 극복, 디지털 사회 선도, 미래 가치 제시 등과 관련된 주간 단위 정책 동향 DB를 구축했다.

- 중국의 과학기술·미래 산업 부문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진핑 집권 이후 미래 산업·기술 관련 중앙정치국 집체학습, 14차 5개년 바이오, 로봇, 스마트제조 산업 발전 계획, 14차 5개년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 제조강국 주요전략 및 의사결정기구, 국가 표준강국 전략,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과학기술 대중화 발전 계획, 중국·아세안 산업 협력 동향 등을 분석했다.

2 중국의 도시화 연구

연구 배경

도시화는 단위 국가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과 발전에 근본이 되는 요소다. 산업혁명과 궤를 함께해온 현대의 도시화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에 기반한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왔으나, 높은 진입장벽과 과다한 실패 비용, 에너지 자원 과소비로 인한 지속 불가능성 위기, 지방 도시와 농촌 황폐화, 공동체 상실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현재 50%를 넘어선 전 세계 도시화율은 후발 국가들의 대도시화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지난 50년간 일어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인구 이동 및 도시화는 농민공 대량 실직, 도농 교육 격차 증폭, 중소도시 경쟁력 상실(토지재정 의존) 등 중국의 미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았다. 게다가 향후 30년간 중국 인구 3.5억 명이 대도시로 유입될 경우 에너지·식량 자원 부족으로 국제적 분쟁과 함께 지구적 위기가 격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규모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글로벌 갈등을 예측하고,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 도시화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2016년~2019년 한·중 신문명도시포럼을 개최해 신문명 도시 아젠다를 범아시아 차원으로 격상시킬 필요성을 공유했고, 2019년

제2장. 중국의 변화

보아오포럼을 통해 신문명 파일럿 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2년에는 미래형 强小 도시를 통한 중국 농민공(農民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한·중 공동연구를 기획했다.

연구 실적

■ 농민공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미래 도시화 연구

도시화 아젠다의 첫 번째 이슈로 농민공 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中共百年史 속 농민공 역사, 시진핑 신시대 향촌진흥전략과 농민·농촌 문제 정책 프레임(시진핑 발언내용 총 취합), 농민공의 어려움과 중지도부가 보는 농민공 문제, 미·중 국토발전계획체계 차이점, 中도시개발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선결과제, 글로벌 기준의 도시화와 중국 특색의 성진화의 차이점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외, 표준강국전략 속 스마트 홈·도시·향촌 평가 기준, 中소강사회, 아름다운 중국, 三農현대화 평가기준, 中중소도시 혁신 사례 등 디지털시대 미래도시에 관한 중국의 정책 동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 미래형 强小도시 구축방안 연구

미래형 强小도시의 핵심 비전을 정립하고, Smart Home·City·Governance 생태계에 대한 심층연구 및 용역을 진행했다.

- 미래 强小도시의 핵심 비전은 5가지다. ①현 도시의 에너지 과소비·고비용 구조 문제를 극복하는 도시다. ②인구 5천~3만 지방 소도시다. 낮은 지대와 진입장벽으로 실패 비용이, 보행생활권으로 에너지·자원 소비가 최소화된다. ③대도시 못지 않은 수준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도시다. 높은 수준의 교육·의료·행정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와 지식·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창조플랫폼을 갖춘 도시다. ④소도시간에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확장된다. ⑤시민합의 기반으로 공동체 도시를 구현하여 사회적 갈등 최소화과 시민 행복 증진을 도모한다.

연구의 핵심은 스마트 홈·시티·거버넌스다. 중소도시에서도 전문화된 젊은 인재들이 모여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특화 산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NASA와 같은 국가통합기구를 통해 스마트 홈, 시티의 각 요소와 도시 경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3 온라인 데이터 업데이트 시스템 개발

연구 배경

세 가지 문제점에 주목했다. 첫째, 전 세계 싱크탱크들이 같은 주제로 많은 연구를 진행하지만 정보 공유와 협업은 부족하다. 둘째, 데이터 자원을 통해 중국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혁신은 연구기관에도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사항이 되었다. 선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 가치를 개발할 플랫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변화 관련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시스템 및 지식의 생산-축적-유통 사이클을 통해 정책 네트워크의 핵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와 머신러닝/딥러닝(ML/DL) 기반의 원스톱 솔루션 기획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연구 실적

머신러닝 및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ALPHREN을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중국 대내외 정책데이터 업데이트 시스템'을 공동 기획했다. 시스템의 주요과제는 ▲최신 지식 정기적 업데이트 ▲최고 전문가 추적 ▲정책 정보 확보 ▲키워드 및 쟁점 추출 ▲전문가 네트워크 맵핑 등이다.

제2장. 중국의 변화

4 글로벌 연구정책 네트워크 구축 연구

연구 배경

연구과제 정책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정책과 태재 내부 연구체계 재정비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지속되었다.

연구 실적

■ 전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7년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중신(中信·CITIC)그룹연구재단 외에 중국국가안전부 산하 중국현대문제연구원(CICIR),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홍콩중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TUIR) 등 연구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 체결을 논의했다.

- 중신그룹연구재단과는 제2회 정례세미나(2022.12) 보고서를 공동 작성하고, 한중 원로대화 재개 등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제3회 정례세미나는 2022년 12월 <中共 20차 전당 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3월 양회 이후로 연기했다.

제2회 정례세미나 보고서는 △양측 기관이 생각하는 글로벌 공동위기와 한중 공동의 이해 △미래도시, 미래산업, 데이터안보, 녹색금융 등 한중 양국이 정책적으로 고찰해야 할 협력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홍콩중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과 전략적 협력관계 체결을 논의했다. Zheng Yongnian 원장(前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장)은 2020년 8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경제사회영역 전문가와의 좌담회’에 참석한 9명의 학자 중 유일한 정치외교 전문가다. 23년간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에서 근무했고, 2020년 초 홍콩중문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Zheng 원장은 중국 공산당 내부변화 및 대외전략 연구 외에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정책제안 연구도 주관하고 있다.

태재는 홍콩중문대를 통해 중국 공산당 내부 변화를 연구하는 최고 석학 및 중국 내부 정책제안그룹과 접촉하고자 하고, 홍콩중문대는 한국 내 중국공산당 연구를 지속적으로 함께할 공동연구기관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은 ▲2023 BAICHUAN FORUM을 통한 글로벌 中共연구 석학그룹 형성 ▲中共 지도자 양성시스템 보고서 공동집필 ▲미래도시 정책제안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논의 중이다

- 미·중 갈등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지구적 지속 불가능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중갈등전환 팀과 TF를 구성하여 韓-美-中 네트워크 연구를 진행하였다.

Yuan Peng 중국현대문제연구원 원장, Xu Bu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 Yan Xuetong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등과 美中갈등·기후변화·WMD 테러리즘을 주제로 한·중 라운드 테이블 시리즈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본 프로젝트는 미·중 간 대화 채널이 단절된 현시점에 글로벌 안보위협 공동연구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Covid 상황 지속 등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2022년도에는 실제 포럼 개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제2장. 중국의 변화

■ 국내외 중국 전문가 리서치 프로파일링 진행

인적자원 발굴 및 관리,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리서치 프로파일링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 미래强小도시 심화 연구 및 정책화를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소성진 정책 입안을 추진한 전현직 고위관료 그룹 ▲25개 중국가급 Top Think-tank 내 도농문제 전문가 그룹 ▲광명일보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中관영미디어가 선정한 삼농 문제 전문가 등 중국 도시계획 정책입안자와 최고 자문기관들을 조사하고 협력 가능성을 파악했다.
- 中共변화 인적자원 DB관리 기준을 ▲지도자 인식 연구 ▲中共 권력구조 ▲中共 정치개혁과제 ▲中共 경제개혁과제로 변경하고, 관련 인물 정보를 업데이트하였다. 그 외, 2022년 중국 공산당·도시화·토지정책 관련 국내 신간 도서 작가 37인을 조사해 인적자원 발굴하고, 일본 내각 관방 내 중국 문제 전문가·연구기관을 조사하는 등 리서치 프로파일링 작업을 지속했다.

■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 세미나 공동개최

한·중 수교 30주년 공공외교 학술세미나, ‘중국의 권력 구조와 경제·대외전략 변화’ 세미나 등을 주최하고, US-China Technology Rivalry and Strategic Choices for Middle Powers in East Asia 세미나에 참여했다.

- 2022년 1월, 中차하얼학회·한중 수교 30년 기념연구준비위원회와 공동주최한 ‘한·중 수교 30주년 공공외교 학술세미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속 한·중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고, 동아시아 공공외교 방안을 논의했다. 미·중 경쟁 장기화 과정 속에서 한중 양국은 ▲고위층 신뢰 구축 ▲반감 정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 ▲동북아 핵군축을 위한 공통의 노력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공공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측 발제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촉구했고, 중국측 발제자는 한국 정치인들의 발언이 한중 양국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22년 6월,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빙해 ‘중국의 권력 구조와 경제·대외전략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의 변화와 개혁개방 이후 남겨진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시진핑 지도부는 사회안정, 경제안정 범위 내에서 중국 경제 시장화 개혁과 정치·법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안 교수는 국유기업제도, 토지재산권제도, 가격제도 개혁 등 경제개혁과제에 초점을 맞춰 현재 중국 공산당의 내부 모순과 과제를 설명했다.

중국이 생각하는 외부 최대 위기요인은 미국이고, 내부 최대 위기 요인은 일자리 부족과 빈부 격차가 불러온 경제 불황과 그로 인한 부동산 폭락이다. 미국의 빅스텝으로 인한 금리인상 및 거시경제 안정성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이 준 동맹 수준의 기술, 군사 협력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외, 안 교수는 한국이 5년 이내에 강력한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의 한국 기술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은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정책 융통성 ▲핵 보유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에 균형전략을 취할 것이다. 한국은 이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첨단 기술발전과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부가가치, 최고의 기술’을 핵심으로 미래산업 전략을 개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3장. 동아시아 협력

[1] 연구 개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통해 미중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을 발굴하고자 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공동체를 구축한 후 미국, 중국, 일본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세계 공영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하에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과의 공동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역내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 수준을 매년 모니터링하는 동북아협력지수 개발과 함께 인프라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담을 수 있는 글로벌 지식 플랫폼 연구의 일환으로 국제 학술지 AGE 발간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성과

1 동북아지역협력지수 개발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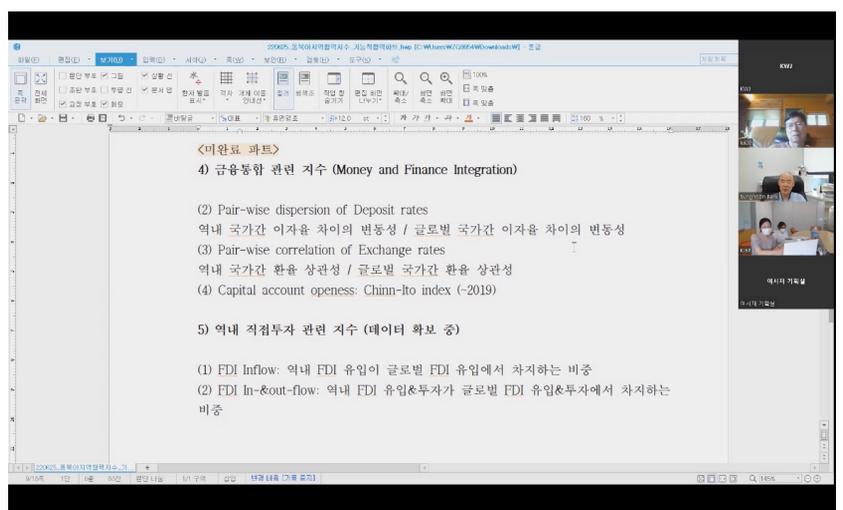
경제, 에너지, 정치,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 수준을 볼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역내외에 동북아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민간 및 국가 차원의 다양한 연구 자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지수 개발과 함께 지수의 확산 범위를 최대화한다.

연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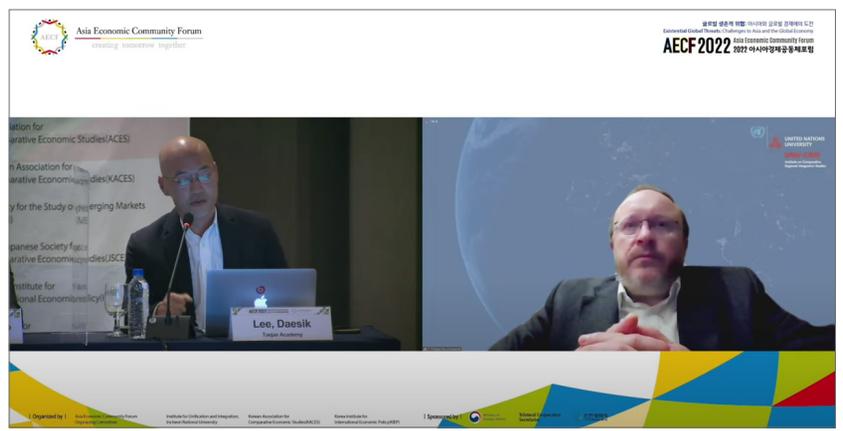
교역, 인프라 등 기능적 협력 수준, 역내 국가 간의 군사, 안보적 갈등, 안보 협력체 구축 수준, 인적 및 지역 교류 현황과 다양한 제도 측면에서의 협력 수준 등 경제,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세부 분야의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종합 지수의 초안을 개발했다. 이후 11월에 개최된 AECF2022에서 동북아지역협력지수 초안을 발표하여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협력지수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하여 지수의 구조 및 평가 점수에 대한 피드백을 취합하여 최종 수정작업을 진행했다.

7월 1일
동북아시아협력지수 온라인 회의



11월 4일
동북아시아협력지수 중간 발표



제3장. 동아시아 협력

2 동북아협력 전문가 세미나

연구 배경

베링해협 관통 교통 인프라, 북극 공동 개발, 수소 등 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동북아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석학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 실적

‘하이퍼루프 전문가’ 세미나

일 시

2022년 3월 24일

발 제 자

이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세미나에서는 하이퍼루프 기술 개발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형 하이퍼루프인 ‘하이퍼튜브’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논의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하이퍼루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 중에 있으며, 한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 기술과 공력 기술을 가지고 하이퍼루프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한국형 하이퍼루프의 상용화로 국토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1일 생활권의 동북아 네트워크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

한편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주요 하이퍼루프 노선에 한국과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북아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중국의 경우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동북아 네트워크 없이도 네트워크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국내 측면에서는 서울-세종 테스트 노선

운영을 고려하고,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하이퍼루프 연구·개발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이퍼루프 실용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중철도 전문가’ 세미나

일 시

2022년 4월 14일

발 제 자

서승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세미나에서는 해중철도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및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노르웨이를 선두로 하여 이탈리아, 중국, 일본, 대서양 등 세계 각국에서 해중터널 설계 및 건설 계획이 제안됐다. 국내의 경우 침매터널 운영과 더불어 독자적인 ‘파이프라인형’ 해중 고속철도 설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 한-일 해저터널 노선이 제안되기도 했다. 한편 해중철도의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공사 시간과 안전 문제, 사용 실적의 미비 등의 이유로 실용화는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실용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또한 시작 단계인 신기술의 개발 협력을 통해 국가 간 협력 수준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선두에 설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해중 터널 건설과 운영에 있어 소음, 진동 등이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3장. 동아시아 협력

‘동북아 수소협력 전문가’ 세미나

일 시

2022년 6월 8일

발 제 자

조용성 식품경제학과 교수,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세미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확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5인을 초청하여 동북아 수소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 발제는 조용성 교수의 ‘동북아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에너지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수소 에너지 협력 방안을 살펴봤다. 조교수는 동북아 공동의 목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3E (Energy, Environment, Economy)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치외교적 접근이 아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기환 연구위원이 ‘동북아 수소 경제 추진 동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탄소중립 실천은 한중일 3국 모두 미흡하고 그린 수소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수소 수입을 위한 공급망 구축 ▲동북아 국가간 수소 무역 협의회 구성 ▲국가별 맞춤형 대응을 통한 협력의 효익 극대화 등 동북아 수소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장, 조홍중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지속가능한 수소 협력을 위해서는 파트너십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과 러시아 신뢰도 문제를 고려하여 호주, 아세안 등 역외 협력 파트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국제저널 AGE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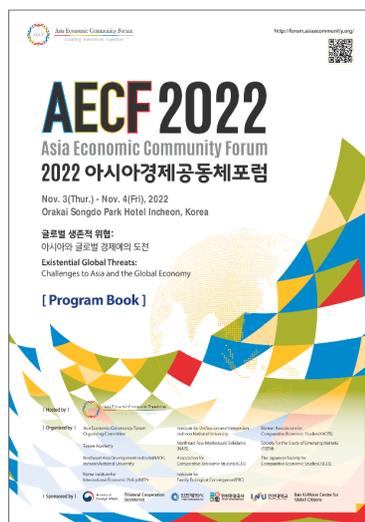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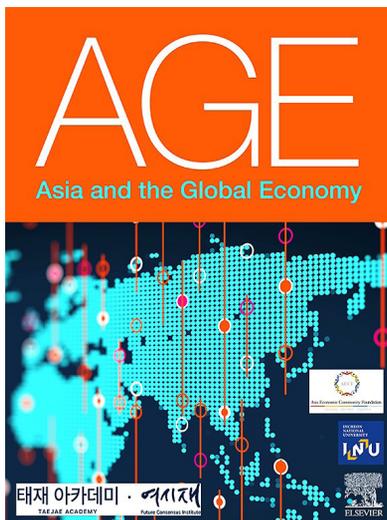
연구 배경

미중 갈등 해소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세계 최고 석학들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모을 수 있는 글로벌 지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인천대학교와 함께 국제저널 'Asia and the Global Economy'를 공동 발간한다.

연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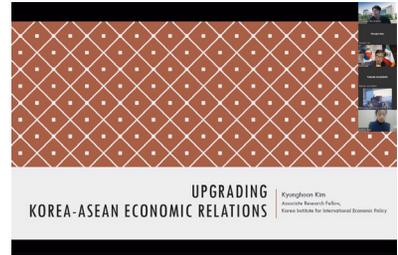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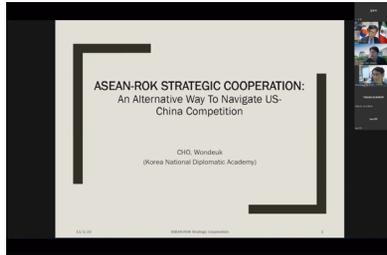
지난 1년간 디지털 경제, 포스트 코로나, 세계 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총 2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이 제안한 Existential Global Threats (WMD 테러리즘, 지속가능성 위기, 지정학적 갈등)을 스페셜 이슈로 설정, 논문을 모집하여 최소 4편을 확보했다.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 주최하는 AECF2022에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AGE 기고를 위해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이 기획한 '한-아세안 협력 특별 세션'에 국내외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좌: 국제저널 AGE 커버
우: AECF2022 메인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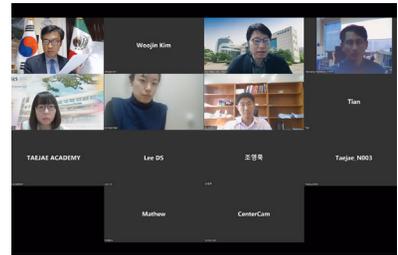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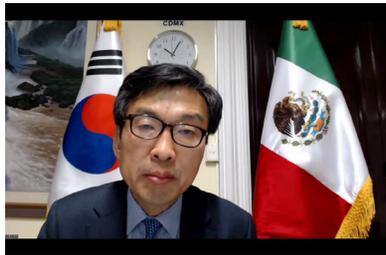


제3장. 동아시아 협력

11월 4일 한-아세안 협력 특별세션
좌: 외교안보 협력 분야 발제
우: 경제 협력 분야 발제



11월 4일 한-아세안 협력 특별세션
좌: 서정인 주멕시코대사(좌장)
우: 좌장 이하 참가자들



4 동남아 협력

연구 배경

미국과 중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며 동북아협력을 이루기 위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동남아에 대한 다양한 기초 연구와 함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구 실적

동남아 국가별 싱크탱크와 각종 기관들을 조사하여 태재미래전략연구원과의 협력 네트워크 연결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동아시아 협력팀과 한반도 미래산업팀이 TF를 구성하여 한-아세안 공동 협력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아세안 각국에 대한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동남아시아 화교 전문가’ 세미나**일 시**

2022년 12월 14일, 2022년 12월 28일

발 제 자

김종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박변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누가 동남아시아 경제를 이끄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동남아시아 화교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화교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미나는 김종호 교수가 ‘동남아시아 화교화인 네트워크, 동화와 분리,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발제하였고, 동남아시아 화교의 정착 및 네트워크 형성 과정 그리고 화교 자본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김교수는 서구의 동남아시아 식민지화로 노동력 총원이 필요해지면서 화교들이 대규모로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교 자본은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의 화교 자본이 IT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미나는 박변순 교수의 ‘동남아시아 화교 경제의 이해’를 통해 화교자본이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교수는 아세안 경제통합에 화교 자본의 역할은 크지 않고, 오히려 화교 자본 주도의 경제는 다양한 모순 구조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교 기업의 렌트(rent) 추구형 네트워크가 아세안 현지의 “격차 사회 형성”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화교 자본의 선택적 투자 경향으로 아세안 주요국의 자본이 금융, 유통, 부동산에 집중되었다는 분석과 함께 제조업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제3장. 동아시아 협력

동남아시아 화교 전문가 세미나
(고려대학교 박번순 교수)
2022.12.28,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제4장. 한반도 미래산업

[1] 연구 개요

한반도의 미래산업은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미래를 구현하고자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산업이면서 한국의 잠재력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 이상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의미한다. 또한 미·중 간의 갈등이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한반도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미래에는 한반도의 미래산업으로 인해 주변국의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이 지향하는 미래산업이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앞서 검토해 온 15개 미래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정교한 심층 분석을 통해 한반도 미래산업분야의 세부 주력 분야를 확정하고, 한반도 미래산업 발전 청사진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프레임 워크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작금의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미래산업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 사업 성과

1 한반도 미래산업 청사진 및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배경

기존 한반도 15대 미래산업이 향후 세계 변화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미래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미래에 압도적, 지속 가능한 우위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15대 미래산업별 既개척 및 未개척분야의 세부 주력 분야를 도출하고, 그에 부합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 실적

이를 위해 기 선정된 한반도 미래산업 중 대표적 산업인 로봇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향후 한반도의 기 개척 및 미개척 분야의 세부 주력산업 후보를 도출하고, 세부 주력 분야별 압도적, 지속가능한 우위 확보를 위한

제4장. 한반도 미래산업

심층분석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동시에 미래산업 분야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향후 로봇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청사진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한반도 미래산업 심층분석 프레임워크 완성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한반도 미래산업의 대표적 산업인 로봇 산업에 대한 세부 주력분야 도출과 발전전략(신지식-신기술 지식 지도 포함) 도출 등 파일럿 분석 등을 통해 향후 한반도 미래산업의 청사진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먼저 미래산업별 기개척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1-3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대상 미래산업별 세부 주력 분야 도출을 위한 세부 업종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다음, 제2단계에는 태재 4대 주제와 5대 인류 비전, 세계 전략과 GVC 변화라는 관점에서 세부 주력 분야의 전략적 방향성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2030년을 전후한 시장트렌드와 시장규모, 관련 학술 논문과 특허, 스타트업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경쟁력 분석, 주요국의 산업 전략과 SWOT 분석 등을 통해 기 개척 분야의 주력 분야 확정 및 지속적 우위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한편 2050년경에 미래주력산업으로 부상할 미개척분야에 대해서는 제4단계에서 미개척분야의 기술 Hype cycle, 기술 Radar, 전문가 세미나와 인터뷰 등을 통해 미래전망 통찰력과 예지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개척분야의 주력 분야를 도출,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 후 마지막 제5단계에서는 해외 및 국내 석학에 대한 자문을 통해 분야별 세부 전략과 지식지도, 지역 배치안 등을 작성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완성하였다.

■ 로봇 산업 심층분석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및 연구용역 추진

기 선정된 한반도 15대 미래산업 중 대표적 미래산업의 하나인 로봇 산업에 대한 파일럿 심층 분석을 위해 국내 로봇 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 미래 로봇 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현황과 미래전략 구상 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미래 로봇 산업 관련 세미나의 주제와 발제자 등에 대한 내용은 < 표 1 >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한반도의 로봇 분야 선도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로봇 분야 R&D 동향과 핵심요소 기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미래 로봇 산업 전략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중·EU·일 로봇 산업 정책 및 동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현재 주요국에서는 전 세계 로봇 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개인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수요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로봇 생태계 구축과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들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자동화 및 로봇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런 추세가 향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발 맞추어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는 배터리 산업과 함께 로봇 도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로 손꼽혔다. 로봇이 대중화 되며 저가 산업용 로봇이 등장하였고, 로봇이 중소기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협동 로봇과 같은 저가 로봇으로 인해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협동 로봇의 경우, 일반 산업용 로봇에 비해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는 시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서비스 로봇의 경우 세계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한 서비스업 대체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고, 각 선진국의 서비스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거대한 규모의 R&D를 통해 서비스 로봇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방과 우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투-트랙(two-track)으로 개발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산업용 로봇의 문제를 서비스 로봇이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U의 경우에는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정밀 기계에서 발전된

제4장. 한반도 미래산업

산업용 로봇을 선도하고 있으며, 교육, 의료, 농업, 방역 분야에서의 서비스 로봇을 주도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 강국인 일본은 핵심 부품과 SI 기업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문제인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대비하는 서비스 로봇,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인프라 로봇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한반도 미래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반도 미래산업 심층분석 프레임워크 완성에 앞서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 주요국의 최근 신산업 전략·정책 및 추진체계 종합 비교분석 세미나를 포함, 최근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산업 전략 전문가를 초청, 주요국의 미래산업 발전 전략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신동평 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한 첫번째 주요국의 신산업 전략 추진체계 종합 비교 분석에서는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의식한 주요국의 산업 전략은 이전과는 달리 정부가 경제안보차원의 전략 기술과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추진된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지역 전문가를 초청한 주요국의 산업 전략 세미나에서는 2020년 이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주요국들이 미래 대응 차원에서 어떤 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으로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1 미래산업과 산업전략 관련 2022년 미래산업팀의 전문가 세미나 개최 현황

주제	세미나 명 또는 발제명	발제자 (소속 및 직위)	일시
AI	AI 동향과 미래 전망, 미래전략	이경전 (경희대 교수)	2022.04.12
드론	항공 우주 산업의 특성과 무인기 기술발전 전망	안오성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	2022.03.30
로봇	로봇산업 동향 및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미래	유범재 (KIST 책임연구원)	2022.04.21
	로봇 산업 동향과 전망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2022.04.25
	미래 로봇 전략 구상	최형욱 (기업인)	2022.07.04
	미래 로봇 산업적 현실성 진단	전승민 (과학전문기자)	2022.07.06
	영유아용 교육 로봇 전망	윤정진 (창의인성연구소 소장)	2022.08.05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헬스케어 생태계 육성전략	박지훈 (KIET PD)	2022.04.04
핵에너지	핵융합에너지 개발 현황 및 전망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	2022.02.25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현황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	2022.03.04
주요국 산업전략	중국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정책	신동평 (KIEP 연구위원)	2022.02.15
	미중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중국	조은교 (KIEP 선임연구위원)	2022.03.07
	미중 갈등과 EU의 신산업 전략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2022.03.10
	미국의 산업 전략	강구상 (KIEP 부연구위원)	2022.03.25
미래연구 방법론	전략적 미래 연구 - 설계와 수행	박병원 (STEPI 선임연구위원)	2022.05.09

제4장. 한반도 미래산업

2 글로벌 밸류체인(GVC) 관점의 미래산업 전략 분석

연구 배경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분야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한반도 15대 미래산업 발전과 관련 미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이들 분야에 대한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과 한국의 해당분야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미래산업 발굴과 전략구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래산업팀에서는 AI, 핵융합 에너지, SMR, 항공우주산업 및 무인기, 바이오산업 중 의료기기 등 미래산업의 레버리지 분야의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국내 최고 수준의 명예교수를 섭외하여 빅데이터산업의 현실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다. 더불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실적

■ 미래산업 레버리지 분야 전문가 세미나 개최

한반도 미래산업팀은 주요국의 최근 미래산업 전략·정책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과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산업 전략에 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병행하여 핵에너지, 바이오 의료기기, AI, 우주항공, 등 다양한 미래산업 발전 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미래산업 후보와 미래 전략적 레버리지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최형욱 퓨처디자이너스 대표를 초청하여 추진한 ‘메타버스, 이론과 사례’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가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급부상하였으며 팬데믹 동안 3D 게임플랫폼인 로블록스 등의 스타트업이 상장에 성공했으며, 아바타 소셜미디어인 제페토의 가입자 수는 3억 명을 넘어서는 등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견 메가트렌드로서 안착한 것으로 보이는 메타버스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함과 동시에 향후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도 짚어보았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가상세계다. 상시화된 연결성에 더불어 실재감을 결정하는 GPU의 급속한 발전과 접속 수단인 디바이스의 대중화는 메가트렌드로서 메타버스를 지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타버스 구현에 사용되는 기술들의 범용성에 비해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충분한 성공 모델이 부재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 미래산업 레버리지 분야 전문가 연구용역 추진

또한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미래형 기술과 기존 산업과의 융합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의 미래 주력 산업화 전략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술 신산업화 전략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데이터 산업의 미래 주력산업화 전략 관련 용역 연구결과에서는 데이터 산업에 대한 국내 현황과 해외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데이터 산업계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동시에 데이터 산업을 미래의 대한민국 주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12가지 전략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2030년 데이터산업을 미래주력산업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데이터 과학 교육 진흥과 데이터 및 AI 인력 100만 명 양성, 데이터 기본법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매출액 100조 원 달성,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천, 데이터 컨트롤 타워 설치와 운영, 데이터 확보 절대량 증가와 빅데이터 도입률 제고, 클라우드 시장 국내 기업 점유율 제고, 개인정보 활용 극대화과 마이데이터 연구 활성화, 의료 부문 데이터 활용 극대화, 5G/6G 기술 도입과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데이터 과학·AI 국제협력센터 설치, 데이터·AI 연구원 설립과 연구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술 신산업화 전략에 대한 연구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초기 금융 거래 위주로 조성됐으나, 최근 의료, 유통, 부동산 등으로 적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메타버스의

제4장. 한반도 미래산업

경우도 처음엔 단순히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생각했지만, 자신의 아바타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NFT 개념이 사용되면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메타버스의 수익모델은 기존 아이템 중심에서 최근 광고, 커머스 분야로 확산되면서 향후에는 메타버스의 확산 추이에 발맞춰 수익모델 역시 유료 아이템 판매 중심에서 마케팅솔루션, 공연, 커머스 등으로 그 적용 영역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단순히 보고서 작성에 추가하여 별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AI와 빅데이터산업 발전 로드맵을 구상하고,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심층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버스의 경우도 향후 실감기술을 통한 몰입감 극대화, 아바타를 통한 현실 경험 확장,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는 협업과 소통 가능, 디지털 자산의 생산·유통, 플랫폼 간 완전한 상호 연동 등이 가능해 질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래 향후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융합기술은 가상경제, 온라인 교육, 헬스케어 등으로 영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현실세계(Physical World)와 대표적 가상 세계인 디지털세계(Digital World)와의 융합공간인 피지탈 세계(Phygital World)로 인식하고 이를 미래산업의 경제사회적 활동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3 한-아세안 협력 분야의 미래산업 파일럿 분석

연구 배경

2022년 8월 말 이후 미중간의 기술패권 경쟁을 비롯한 여러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이 대안적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후보지이자 새로운 글로벌 성장축으로 부상하면서, 한반도 미래산업의 발전기반을 한-아세안으로

확장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래산업팀은 동아시아팀과 함께 한-아세안 TF팀을 새로 조직해 연구영역을 한반도에서 한-아세안 협력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 분야의 미래산업 발전 청사진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 실적

■ 한-아세안 협력 강화 차원의 미래산업 분석 프레임워크 설정

한-아세안 미래산업 분석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다루도록 설계되었다. 첫번째 질문은 “향후 미·중간 갈등구조를 협력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과 기여가 가능한 한-아세안 협력 분야의 미래산업은 무엇인가?”이다.

두번째 질문은 “향후 한-아세안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 역량과 사회적 역량은 무엇이며, 미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해소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한반도와 한-아세안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산업과 그러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신지식-신기술의 개발과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정체성 기반의 미래산업은 무엇이며, 미래산업에 필요한 산업 및 사회적 역량, 더 나아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신지식-신기술과 확보 전략에 관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이를 향후 아세안 국가별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프레임워크는 크게 해당국가의 현재 주력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역량(에너지, 인프라, 인력, 대학, 생태계 등)에 대한 현황분석 및 주도 세력과 향후 2030~2050년 아세안 각국이 1인당 평균 GDP가 3만 5,000달러 정도의 소강 사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각국의 미래산업과 이에 대한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4장. 한반도 미래산업

■ 한-아세안 협력 분야 미래산업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및 연구 인프라 구축

한반도 미래산업의 연구영역을 기존 한반도에서 한-아세안으로 지역적 연구범위를 크게 확장함에 따라 아세안 지역전문가를 초청, 아세안 특유의 지배구조상 특징인 화교 화인의 경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2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이 두 세미나는 동아시아팀에서 주관하여 세미나 내용과 요약은 동아시아팀 백서부분에서 상술함으로 여기서는 생략함)를 개최하는 한편, 아세안 10개국 경제 산업 현황에 대해 대외경제연구원의 정재완 선임연구원을 초청, 지역개괄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 현재 태국정부의 초청을 받아 태국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자문위원인 이정협 박사를 아세안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11월 18일 아세안 10개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세안 전반에 걸쳐 현재의 산업구조와 성장잠재력과 사회적 역량, 미래산업과 관련 현정부의 전략과 계획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

제5장. 초일류역량

[1] 연구 개요

초일류 역량 확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사회로 진화하는데 핵심적인 7대 분야 (▲싱크탱크 ▲대학 ▲기업 ▲미디어 ▲정부 ▲정당 ▲국방)의 혁신 방안과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하는 태재미래전략연구소의 주요 연구 과제이다.

이 연구 과제는 태재미래전략연구소의 설립 이념인 ‘미래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사회부터 초일류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과 세계인들의 새로운 세계 질서 동참을 이끌어내는 과업은 대한민국 스스로 초일류로서 모범이 될 때에야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에는 7대 분야별로 세계 최정상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혁신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중 싱크탱크, 정당, 미디어, 국방, 대학의 5대 부문에 대해서는 혁신 과제별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도출된 정책 제안들은 해당 부문의 중장기적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디지털 대전환’으로까지 불리는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대전환의 시대에 과거의 ‘선진 모델’이 미래에도 모방해야 할 정답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한국에게는 새로운 판을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이에 태재미래전략연구소는 기존 연구를 발전시켜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7대 분야별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그리는 선제적이고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게 됐다. 그 첫 시도로 2022년에는 미래 거버넌스의 변화를 전망하고 정당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실험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정당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제5장. 초일류역량

[2] 주요 성과

1 정당 혁신 방안 연구

연구 배경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본연의 가치는 국민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국가적 의사 결정과 집행에 반영하는 데에 있다. 다양한 이념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은 그 시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 싸움에 매몰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당의 또다른 주요 역할은 미래의 정치 리더 육성이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낙제점이다. 정치 이력이나 비전에 대한 다층적 평가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명망가를 영입하거나 당의 지도부와의 친분으로 공천을 얻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미래 비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거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을 훈련해 리더로 키우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태재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 정당모델 제시를 위한 사전 연구로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해외 4개국 정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실적

‘웹 3.0시대 정당의 미래’ 세미나

일 시

2022년 8월 30일

발 제 자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정치 개혁이 실패하는 원인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당의 미래 모델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형 조직)가 제시됐다.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 정당의 근본적인 문제로 비대한 중앙당 조직과 개인화된 권력 구조가 꼽혔다. 특히 중앙집권적 공천권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정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역량있는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축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공천 개혁 ▲정책 내 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등이 논의됐다.

또 세미나에서는 집중된 권력을 분산화하고 당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당 형태로 DAO 형태의 조직 도입이 제안됐다. DAO형 정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보상 받는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정치 과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정당의 미래’ 세미나

일 시

2022년 9월 23일

발 제 자

윤기영 FnS 컨설팅 미래전략연구소장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첫 발제는 윤기영 소장의 ‘디지털 전환과 정당의 미래’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정치 환경의 변화와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 실험을 살펴봤다.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소통과 참여를

제5장. 초일류역량

활성화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2038년경에는 오감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초국가적 정치 참여가 이뤄지며 기존의 물리적 국가를 뛰어넘는 정치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유권자의 의사소통 역량강화 ▲정책 실험 체계 구축 ▲숙의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는 송경재 교수의 '정당의 위기와 디지털 참여 플랫폼 정당의 진화'를 주제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정당의 특징을 살펴봤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ICT/리더십 정당' 모델이 소개됐다. 그러나 ICT 정당 역시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으며, 향후 디지털 참여 플랫폼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핵심은 디지털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과 정당의 강화를 통합하기 위한 다층적 고민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 해외 4개국 정치 지도자 양성 사례 조사

주요 국가의 미래 정치 리더 발굴과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고 한국 정당에 적용 가능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독일, 중국, 싱가포르 등 4개국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국가들은 크게 ▲다원적 경로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식과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두 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선정됐다. 다원적 경로의 상향식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미국과 독일이, 중앙정부 주도 방식의 국가로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조사됐다.

미국: 하부 커뮤니티 기반 풀뿌리 정치 활동

공화당-민주당 대학생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치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 각 대학생회는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연사 초청, 이슈 투쟁, 정치인과 연계와 같은 현장 경험을 조기에 쌓아가며 정치 입문 경로의 장으로 활용된다. 또한 미국 정당 싱크탱크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 실행 경험을 통한 역량 증대로 정치권 등용문으로 작용한다.

독일: 정당 주도 시민 교육과 관료 양성

다양한 정당 기반의 대학생회를 통해 본격적인 청년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며 현역 정치권과의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 홍보, 지역주민과의 연계, 의제 발굴 및 개선책 논의와 같은 실용적 정치활동을 조기에 경험 할 수 있다. 미국과의 차이점으로는 나이, 전공, 학벌과 무관한 정치 지도자를 비당파적 시민교육을 통해 배출해 왔다.

중국: 집체 학습을 통한 엘리트 당원의 교육

중국은 하나의 통일된 공산주의 사상 유지와 체계화된 권력의 이양을 위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피라미드식 인재 양성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행정학원에서 중-고급 간부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당과 국가 주요 사상 이론 교육 및 연구를 전파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정기적인 전국적 집체 학습 교육을 통해 경제, 정치 등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통일된 학습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사상 통일, 현안 인식 및 중 장기 과제를 공유하는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싱가포르: 소수의 엘리트 공무원의 권력 집중주의

리관유 총리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공공서비스에 종사시켜야 한다'는 이념에 따라 국가 건설을 주도했으며, 이에 기반한 인재 선발과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우수한 학생을 국가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관리하며 대학내 엘리트 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1개 이상의 인사관리 조직을 운영하며 자격 임용제 원칙에 따라 공정성, 일관성, 자격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인사 관리를 한다.

2 미래 거버넌스 모델 연구

연구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권력 관계와 통치 시스템에도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조와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정책 제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거버넌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였다. 블록체인의 활용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예상되는 거버넌스의 변화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세미나를 준비하며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경계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살펴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 실적

‘Web3 and RE:Birth of the Individual, DAO’ 세미나

일 시

2022년 9월 8일

발 제 자

박혜진 바이야드 대표

이 세미나에서는 Web3의 발전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DAO의 현황과 가능성을 논의했다. DAO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작동하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을 의미한다. DAO 안에서는 모든 조직원이 동등한 참여 권한을 부여받으며 개인이 주체의 자리로 올라선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명성과 익명성이 높은 대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SBT(Soul Bound Token)를 발행해 익명성을 지키면서도 출생, 학력 등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아직까지 DAO는 주로

투자 부문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치 영역으로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로비활동이 합법인 미국에서는 '3OH DAO', '로비3 DAO' 등 Web3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정치 DAO가 이미 여럿 운영 중이다.

디지털 전환의 명과 암, 리스크 대응

일 시

2022년 11월 2일

발 제 자

윤기영 FnS 컨설팅 미래전략연구소장

디지털 전환은 인류 문명을 도약시킬 혁명적 변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디지털 사회의 5대 메가 트렌드는 ▲長生사회 ▲인지노동 자동화 ▲융합 플랫폼 ▲경험의 개인화 ▲지식 반감기 단축이다. 각 트렌드는 수명 양극화 심화, 글로벌 경제적 양극화 심화, 대한민국의 중진국 고착화, 후기 경험 사회, 디지털 디바이드 악화 등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각 리스크는 불가분하게 엮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안이 없으면 사회 갈등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기민하고 지속적이며 미래 예측에 기반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사회

일 시

2022년 11월 10일

발 제 자

문영훈 이소스피어 대표

이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기대되는 사회 변화를 전망했다. 특히 이날 논의를 통해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기술이 공동체성을 확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5장. 초일류역량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와 정책 제안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존하는 가장 발전된 기록 시스템이며 탈중앙·수평적 구조로 미래의 정치·사회구조를 변혁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정치활동의 과정을 합의 - 공동 행동 - 피드백의 순환 고리로 보면, 블록체인은 각 과정에서 아주 작은 데이터까지도 기록하고 검증한다. 이같은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시스템보다 더 나은 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인류 난제인 민주주의의 위기, 전쟁, 기후위기와 같은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분산금융 프로토콜이 피라미드 구조의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기존의 법률체계를 대신할 것이다. 메타버스와 문화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DAO가 주식회사를 대체할 것이다. 현 체제의 여러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블록체인의 무정부주의·자유지상주의 편향성과 파편화, 공공의 소멸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블록체인과 미래’ 세미나
2022.11.10,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대화당



‘Web3 and RE:Birth of the individual, DAO’ 세미나
2022.09.08,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대화당



3 정당 DAO 실험 프로젝트

연구 배경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앞서 진행한 세미나와 기초 조사를 통해 기존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DAO의 잠재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DAO는 현재 중앙당 소수에게 독점된 권력의 분산을 이루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실제 DAO 형태의 실험적 정당 조직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연구 실적

■ 정당 DAO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탈중앙 자율 조직인 DAO를 한국 정당 정치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철학적, 윤리적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 4인을 초대해 3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제5장. 초일류역량

날짜	간담회 내용
1차 (1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O정당이 추구해야할 미션과 비전 • 기존 블록체인 정당의 문제점 검토
2차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커뮤니티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점 제기 • 기존 정당과 DAO 정당간의 차별화 방안 논의
3차 (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O정당의 3대 핵심 요소 (신원, 재무, 투표) •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진입장벽 개선 검토

■ 정당 DAO 설립 프로젝트 추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정당 DAO 설립을 위한 기술 및 운영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를 통해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의 실험형 정당 DAO를 위한 로드맵 마련, 의제 개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작성, 멤버십 및 토큰 정의, 보상 시스템 등을 개발해왔으며 2023년 3월 초대 멤버로 구성된 폐쇄형 베타 정당 DAO 운영을 시작했다. 베타 운영을 통해 DAO형 정당의 특성과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오픈형 정당 DAO를 설립하고, 투표 시스템, 정당 문화 및 정당 환경 혁신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여 미래형 정당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날짜	간담회 내용
1차 (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O형 정당의 발족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간담회 멤버 구성
2차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DAO Mission Statement 초안 작성
3차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 DAO Mission 확립 • Mission Statement 보강
4차 (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DAO의 우선적 추진과제 논의 • 법률적 검토 논의
5차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DAO의 ROAD MAP 초안 작성 •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네트워크 기능의 세부방안 논의
6차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구조 논의

날짜	간담회 내용
7차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에 따른 보상과 페널티 논의 • 정당 DAO 발족을 위한 구체적 타임라인 설정, 문서화 작업
8차 (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DAO 구성을 위한 기술 회의 (바이야드 박해진 대표) • 제안 - 의사결정 - 아카이빙 구조 확립
9차 (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에 따른 보상의 종류와 정의 구체화 • 핵심 의제 설정
10차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밍, 토큰 거버넌스 구성, 토큰 운영방식 결정 • 정책 제안 및 투표 기준 설정, 멤버의 권한 설정, 보상 체계 정립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2022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백서

발행일 | 2023년 4월

발행인 | 김도연

발행처 | 태재미래전략연구원

A.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24

T. 070-4227-9751

E. future.consensus@gmail.com

디자인 |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퍼스텍빌딩 9F

T. 02-786-2999